



“예술인·지역 함께하는 공간으로”

섬세함 속 깊은 울림에 쏟아진 갈채

우여곡절을 겪고 본격 닷을 올린 '제주아트플랫폼(가칭) 조성사업'. 100여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제주시 원도심 내 지상 8층·지하 3층의 옛 아카데미극장(재밋섬)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짜여진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간 조성 및 운영모델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옛 아카데미 극장에서 '제주아트플랫폼(가칭) 조성 TF'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

재단은 오는 5월까지 라운드테이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공간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앞서 지난 10일 옛 아카데미 극장에서 '제주아트플랫폼(가칭) 조성 TF'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

제주문화재단, 지난 10일 아트플랫폼 조성 TF 현장실사 “주차공간 확보·주민참여 운영 방안 고민 필요” 목소리 라운드테이블로 공론화 시동… 공간 밑그림 그리기 속도

제주아트플랫폼(가칭) 조성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될 TF는 행정과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지역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초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TF의 공동위원장은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과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이 맡고 있다.

운영모델을 정하게 된다.

현장 실사에서 계단을 통해 이동하며 전체 층을 둘러본 TF 위원들은 향후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 참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지역 주민,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으로의 조성을 강조했다.

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TF에서 논의해나가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제주도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은 “차근차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가려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 실사를 마친 재단은 본격적인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 돌입한다. 첫 공론화 과정으로 내달쯤 예술인, 지역 주민, 도민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비롯 행정 절차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빠듯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을 비롯 지역 주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사업 순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현장 실사는 재단 김수열 이사장, 제주도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을 비롯 TF위원과 도·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열려있는 공간, 함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도민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머리를 맞대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프로그램 운영도 고민해야 하지만,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eioh@halla.com

현재 건물 5~7층엔 영화관으로 사용된 6개관이 남아있다. 맨 위 8층엔 낮은 층고의 사무공간이, 7층엔 영화관 외에 야외공간과 작은 사무공간이 있다.

재단은 TF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 계획이 확정된 3~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한 공간 활용 방안 및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도 “도민

제주예총,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돕기

17일까지 구호물품 기부받아 대사관에 전달 예정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제주예총)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돕기에 나서고 있다.

제주예총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회원단체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제주예총은 사무실(제주시 동광로 51, 5층)로 보내온 겨울의류를

비롯해 다양한 생필품, 먹거리 등을 모두 수합해 주한튀르키예대사관으로 보낼 예정이다. 대사관에 도착한 물품은 터키항공을 통해 튀르키예로 무료 운송된다.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펴보면 겨울의류(성인 및 어린이), 코트·재킷, 우비, 부츠, 점퍼, 바지, 장갑, 스카프, 모자, 양말, 속옷 등이다. 오은지기자

제주의 봄 부르는 음악축제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오는 16일까지 문예회관서



지난 8일 개막 공연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린 '제6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JICMF)'. 봄을 부르는 실내악 향연은 오는 16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이어진다.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조직위원회 제공

실내악의 화음이 만들어내는 깊은 울림이 제주도 문예회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지휘자 없이 연주자들이 교감하며 들려주는 섬세하고 정교한 연주에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오롯이 빠져든다. 지난 8일 개막 공연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린 '제6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JICMF)' 이야기다.

제주의 예술인들이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이, 겨울 클래식 음악축제로 자리매김을 꾀하는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이 도민에게 클래식 여행을 권하고 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등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며 교감하는 섬세한 앙상블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국내외 정상급 클래식 음악가들과 제주를 대표하는 연주자들, 그리고 신인 뮤지션과 음악영재들이 하

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드보르자크, 드뷔시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듀오부터 8중주까지 구성해 들려주고 있다. 귀에 익은 익숙한 곡이 아님에도 콘서트 가이드의 청중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이 더해져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과 손을 잡고 '유럽에서 제주까지'란 주제를 달고 열고

는 올해 6회 행사는 오는 16일 폐막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13일과 14일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3인3색의 밤' 등 유럽의 향기를 전해줄 하우스 콘서트(전석 무료)가, 15일과 16일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메인 콘서트에 예정돼 있다. 대극장 공연 관람료는 유료(1층 1만원, 2층 5000원)며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제주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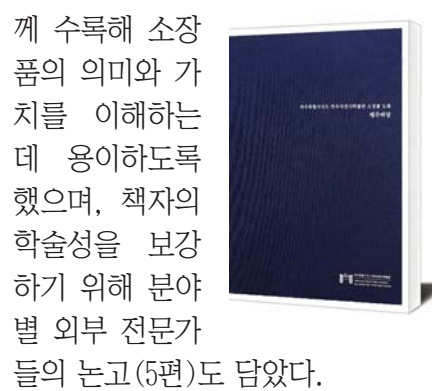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장품 도록 '제주바당'을 발간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개관 이래 제주 고유의 특색과 전통을 지닌 다수의 자료들을 수집해 왔으며, 소장품 도록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바당'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주바다 관련 박물관 주요 소장품들을 집약하고 있다.

제주의 해안 지형과 생태계 등 자연 분야는 물론 제주 바다와 관련한 민속문화, 역사, 문화예술 등 인문 분야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고화질 도판과 설명문을 함



께 수록해 소장품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했으며, 책자의 학술성을 보강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의 논고(5편)도 담았다.

책자는 14일부터 3일간 80부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전자과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한편 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선 이번 도록과 연계된 '바다수업水業'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오은지기자

도립미술관, 찾아가는 교육 4월부터 30개 학교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립미술관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예연구사, 문화예술교육사, 작품보존처리사 등 미술관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교육'으로 교육 자료집과 직업별 해당 전문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운영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 단체 및 동아리도 학교별 2개 학급씩 총 30개 학교·60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은 13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립미술관 누리집 참고. 오은지기자

수축상
CONGRATULATIONS
국무총리표창



문종해
(본회 회장)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승우 정신선양회 회원일동

선축정
CONGRATULATIONS
대한검도회 우수검도관



안용남
(외도검도관 관장)

대한검도회 우수검도관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취축임
CONGRATULATIONS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고동완
(제주노블로타리클럽 재단위원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노블로타리클럽
회장 박성철 외 회원일동

승축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수산물수출협회
회원사일동